

‘중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변천과 성격’에 대한 토론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1. 외래계의 주거 유형은 수석리유형 외에 정의된 바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사실 점토대토기문화의 주거 유형은 이전부터 수석리유형(원형점토대토기 출토)과 늑도유형(삼각형점토대토기 출토)으로 대별된 바 있다. 물론 발표자가 정의한 중서부지방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출토하는 유적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중서부지방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들은 외래계가 아닌 재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들은 별다른 주거 유형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2. 용어 정리 필요성

- 논제가 중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변천과 성격인데 본문에서는 경기, 호서, 영동, 영서 지방으로 지역을 나누고 있다. 영동과 영서까지 중서부지방으로 포함시켜 보아야 하는가? 경기, 호서와 영동, 영서의 재지 무문토기문화의 전개 양상이 다르다면 지역별로 다른 접변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3. 단계설정과 관련하여

- 발표자는 파수의 종류, 늑의 유무, 점토대의 형태, 두형토기 대각의 형태, 흑색마연장경호, 개의 유무 등 여러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고 있다. 단계 구분을 하는데 너무 많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유적에서 이렇게 다양한 유물의 공반되기는 힘들고 대개 몇 개의 기종만이 출토되는데 다양한 기종의 편년 축 설정이 단계의 구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지?

4. 원형개의 출토 유무에 대하여

- 영남지방 삼각형점토대토기 등장 직전에 확인되는 원형개 등의 유무로 단계설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역시 사천 방지리나 늑도 등 대규모 유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중서부지방처럼 몇몇 주거지에서 공반되는 개의 유무만으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지는 않는지?

5. 남경 3호 주거지 출토 유물 점토대토기설에 대하여

- 토론자는 남경 3호 주거지 출토 유물이 점토대토기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발표자는 반대 입장인데 만약 남경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 점토대토기이고 이것이 영동지방 등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점토대토기와 공반된 다른 유물에서도 계기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남경 3호 주거지 출토품과 아주 유사한 중서부지방의 유물 조합상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확인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3단계의 주거지인 춘천 현암리에서 남경 3호 출토품과 유사한 점토대토기구연편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두 유적 간의 시기차로 적절한 수준인가?

6. 1단계 취락에서는 외래계와 재지계가 모두 확인되는데 2단계 취락에서는 서울 대모산 유적을 제외하고 재지계 유물이 공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7. 점토대토기문화를 발생시킨 이주민 집단과 재지 집단의 정치체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과정에서 한국식동검이 발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준왕이 남천할 당시에 韓이라는 정치체가 어느 정도 사회통합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적 기록보다는 필자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외래계 주거 유형과 재지계 주거 유형, 혹은 외래계 분묘와 재지계 분묘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정치체 통합을 증명하는 것이 보다 고고학적 방법이 아닌지?